

## “노동법 개약하면 문재인 청와대 햇불 볼 것”

### 금속, 노조파괴법 파괴 결의대회 열어...민주노총 비대위 임원 삭발, 국회 농성 돌입

금속노조가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는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전개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산별노조의 손발을 묶고, 노사관계 주도권을 자본에 넘기려는 노동법 개약을 시도하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성’에 들어가며 삭발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약은 ILO 핵심협약 기준을 빙자한 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전국 각지 민주당 앞에서는 결의대회와 선전전, 행진 등을 벌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자격과 명분으로 노동법 개약을 밀어붙이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투표를 벌였다. 전체 당원의 26%만 참가했다. 이 가운데 86%의 찬성을 근거로 아무 문제없다고 우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초등학교 반장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다. 민주당은 초등학생한테 배우라”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민주당식 노동법 개약을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촛불항쟁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노동자 민중은 거리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동법 개약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햇불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약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국회 농

김유정 법률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노동 후진국 분류될까 봐 안달이다. 한-EU FTA에서 무역 통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올해 안에 ILO 핵심협약에 맞춰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원장은 ILO 협약에 맞춰 단결권이나 보장하라며, “재난 시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개약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노동자들이 직접 발의한 전태일 3법이나 제·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사무처가 준비한 노동법 개약 내용을 꼬집은 풍자극과 전태일 3법 쟁취 박 터트리기를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 금속노조, 2020년 중앙교섭 조인식 열어

최임 8,800원·노동권 보장·감염병 대응 등 합의...노조, “의제 중심 중앙교섭으로 발전해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1월 3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노조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들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 조합원 18,186명 중 15,048명이 투표해 참가해 12,976명(86.2%)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흔들 수 있는 노조 요구안이 있어 교섭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축소 교섭에서 노사 간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돌아봤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 유지와 강화에 노사가 함께 하자는 이번 합의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내년은 금속노조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금속산업 노사관계도 보다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의 고충이 있었을 텐데 합의안을 만들어낸 교섭 대표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앞으로 중앙교섭은 요구안 중심에서 의제 중심의 교섭으로

발전해야 한다. 외국 산별노조는 몇 년간 의제에 관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높은 수준의 교섭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도 중앙교섭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라며 이에 관한 준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체계에 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할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요청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9월 16일 13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8,800원(월 통상임금 1,988,800원) ▲노동3권 보장 조항 신설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조항 신설 등에 의견 접근했다.



# “노동자 김진숙이 만든 길 따라 우리가 갑니다”

[사람과 현장] 금속 여성노동자와 만난 김진숙 조합원 (1편)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을 휩쓸었다. 사고 일어난 수 십 개의 노조가 세워졌다. 조금씩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환경이 나아졌다. 해고됐던 많은 노동자가 공장으로 돌아갔다. 아직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은 돌아가지 못했다.



고 눈빛은 단호했다. 김 조합원의 눈은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듯했다.

## 군계일학 대의원

“열여덟 살에 노동자 됐어요. 옷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동네 친구이거나 친척이었던

1997년 경제 위기가 닥쳤다. 국가가 국민이 모아준 금덩이와 세금으로 기업이 진 빚을 갚아 줬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해고는 일상화반사가 됐지만, 몇몇 해고 노동자들은 투쟁 끝에 공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은 언제나 “김진숙은 안 된다” 였다. 투쟁할수록 자본은 김진숙의 복직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1986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갔다가 징계하고 당한 김진숙 대의원은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 밖에서 있었다. 1989년 한진이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했다. 35년을 그렇게 서 있다. 함께 해고된 동지들은 복직했지만, 김진숙은 여전히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러는 동안 박창수가 죽었고 김주익이 죽었다.곽재규, 최강서가 세상을 떠났다.

34년 전 “눈매가 무섭던 낯선 남자들에게 머리통을 검은 보자기에 덮어씌운 채 대공분실로 끌려갔던”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

“저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해고는 여전히 부당합니까?”

금속노조 여성위원회가 10월 22일 김진숙 조합원을 만나 함께 하기 위해 여성조합원 수련회를 열었다. 아침 출근 복직 투쟁을 함께 하며 잠깐이라도 김진숙 조합원의 투쟁에 힘을 보태자는 노조 여성조합원들의 마음이 모였다.

금속노조 여성조합원들은 ‘김진숙 언니가 만든 길을 따라 우리가 갑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김진숙 조합원을 맞이했다. 지금 김 조합원은 한진중공업뿐 아니라 암과 싸우고 있다. 한 시간 남짓한 강연 내내 김진숙 조합원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

여공들은 공장에서 부르는 이름과 가족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열세 살 이하는 어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신분을 속이고 남의 이름으로 취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어린 여공들은 조장들이 15월에 파는 각성제를 먹으며 잠을 아예 안 자는 ‘곰빠기 철야’ 를 했다. 이 노동자들은 약을 먹고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재봉틀 바늘이 손가락에 박힐 때까지 일했다. 생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노동자들은 남성 관리자들이 수시로 성추행을 해도 성추행인지 모르고 당했다. 여성 인권은커녕 성추행이 범죄라는 개념도 없었던 때다. 김 조합원은 그때를 “나도 아무 것도 몰랐던 한심한 시절” 이라고 회상했다.

김진숙 조합원은 1981년 용접공으로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다. 남성 조합원 오천 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조합원이었다. 김진숙은 공장에 다니

며 야학에 나갔다. 대학을 나오면 일하면서 육도 안 먹고 맞지도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야학을 잘못 골랐다.

“당시 야학은 노동법을 가르쳐주는 노동야학과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야학이 있었는데 둘을 구분 못 해 노동야학에 들어갔어요”라며 김 지도위원은 웃었다. 노동야학에서 전태일과 노동권을 얘기하는 선생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 말고는 김진숙한테 존댓말을 하는 곳이 없었다. 신고를 단념하고 계속 노동야학에 다녔다.

김진숙 조합원은 잔업을 받기 위해 직장(반장)에게 술까지 사는 노동자 ‘아저씨’들에게 강제 잔업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아저씨들은 김진숙이 다가오면 “근로기준법 온다”라며 피했다고 한다.

1986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위원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가 열렸다. 김진숙 조합원은 대의원에 출마했다. 회사 관리자가 불러 왜 출마하냐고 물었다. 김진숙은 “민주노조를 생취하러 출마한다”라고 대답했다. 회사가 발각 뒤집혔다. 당시 현장 대의원들은 모두 회사 관리자였다.

김진숙 조합원이 출마한 부서만 유일할 경선이었다. 세 명을 뽑는데 여섯 명이 출마했다. 김진숙 조합원 1위로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대의원 88명 중 87명이 사측 관리자였다.

당시 어용노조가 낸 대의원대회 자



료집을 보니 살아있는 김진숙 대의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었다. 더 가관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아서 환갑잔치를 벌였다.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다른 조합원들 부모님도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 5천 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자녀들은 초등학교까지 모두 결혼했다. 어용노조는 그런 방식으로 경조사비를 떼어먹었다. 다치면 노조에서 주는 위로금 2만 원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30년 일한 노동자도 위로금이 있는 줄 몰랐다. 하지만 김진숙 대의원 이름 옆에 여섯 개의 도장이 찍혀 있고 위로금 12만 원을 받은 거로 되어 있었다. 기본급이 136,100원이던 시절이었다.

### “웃으며 일하고 퇴근하는 게 노동해방이지”

김진숙 대의원은 어용 대의원들이 횡령한 돈을 받으러 다녔다. 집까지 찾아갔다. 돈을 어쨌나니까, 어용 대의원들은 다 썼다고 대답했다. 대문 앞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떼먹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김 대의원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빚쟁이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김진숙 대의원은 빚쟁이라는 오해

를 풀고 어용노조를 더 압박하려고 압박 봉대에 매직으로 단결이라고 쓰고 태극마크까지 그려 넣어 머리에 썼다. 김 조합원은 “그때 머리를 띠를 매고 집에서 출발하는데 당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만나는 아저씨마다 ‘진숙아 니 머리 다쳤나?’라고

물어보더군요. 거울을 보니 머리에 두른 압박 봉대가 늘어나 단결이라는 글씨는 보이지도 않았어요”라며 웃었다. 어용 대의원들은 생각보다 순진했다. 돈을 돌려줬다. 김 대의원은 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줬다.

“어느 날 현장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 올라다보니 50살이 넘는 아저씨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하나가 가슴에 확 와 닿더라고요. 5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그 아저씨가 그렇게 웃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웃음만은 지켜주자고.”

김진숙 조합원은 “노동해방이 뭐 거창한 이데올로깁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세상이 노동해방 세상이지요”라고 했다.

관리자만 보면 피하던 노동자들은 더는 관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현장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어느 날 관리자가 보자고 하여 나갔다가 낯선 남자들에게 검은 보자기에 씌워진 차체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차가 어딘가에 도착하는 듯하더니 ‘충성’ 하는 경례 소리가 들렸다. 부산 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이었다.

<2편으로 이어갑니다>